

여수·광양항 선박 속도 줄여 미세먼지 확 줄였다

항만공사 저속 운항 프로그램 운영
선박 7408척 중 2216척 참여
오염물질 5.4%, 탄소 1769t 감축
연간 소나무 10만 그루 심는 효과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선박속도 줄이니 미세먼지가 확 줄었어요.”
28일 여수·광양항항만공사에 따르면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연간 소나무 약 1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선박 7408척 중 2216척이 참여해 29.9%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 중 2120척의 선박이 저속운항을 준수해 95.6%의 준수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5.4% 저감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산화탄소(CO) 1769t, 초미세먼지(PM2.5) 2.7t, 질소산화물(NOx)

135t, 황산화물(SOx) 5.66t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오염물질 감축은 연간 소나무 약 1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공사는 지난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따라 7억5000만원 범위에 다음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신청 선박이 연간 총 입항 횟수의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지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60% 이상 저속운항을 준수할 경우 선종별 선박 입·출항료(1당 111원)를 자동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컨테이너선 30%, 일반 화물선과 LNG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은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공사는 5월 1일부터는 자동차 운반선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선종으로 포함돼 더 많은 선박의 저속운항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중 여수·광양항항만공사 부사장(운영본부장)은 “대상 선종 추가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선박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며, 배출물질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노인요양시설 9곳 304명 대상 결핵 이동검진

고흥군은 결핵퇴치를 위해 찾아가는 노인요양 시설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흥군은 노인요양시설 9개소 입소자 304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해 이동검진 차량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기를 갖추고 검진하며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 의심소견자의 경우 당일 객담 채취까지 실시하는 등 신속한 진단으로 어르신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결핵을 치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엑스레이 판독 결과 결핵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인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추가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결핵은 호흡기 전염병으로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준수와 기침 예절이 필요하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 개장

옛 충무초등학교 부지에 조성
조형물·민초상·히스토리얼 등 설치

순천시 관계자는 “평화광장을 통해 순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조명하고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평화광장을 시작으로 역사 체험학습장 및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 “2022년 해를 맞아 신성리 일원의 정유재란 전적지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해 9월 한·중·일 평화정착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유재란 막판 순천 외교 성에서 대치했던 조선과 명·왜군 장수 동상 배치를 추진했다가 비난을 샀다. 동아시아 3국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한 전쟁의 아픔을 비롯해 민족들의 힘든 삶을 평화공존의 장에 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국을 대표해 조선의 이순신, 권율 장군 등 5명의 동상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왜의 장수를 동상으로 세울 수 있느냐는 지적이 지속되자 설치를 포기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옛 순천 충무초등학교 부지에 문을 연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 <순천시 제공>

여주시 별관 증축 여부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여주시의회가 여주시가 제안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여주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별관 증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재현 의원이 발의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즉시 실시할 것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화합과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주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의안 가결은 3여(麗) 통합의 위대한 시민정신과 함께 새로운 여수,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가 서로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론조사 방식을 참고해 여론 조사를 할 계획이다.
여주시 본청사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麗) 통합으로 학동에 있는 1층사에 자리 잡았으나, 여서청사와 국동 임시별관 등 8곳에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주시는 본청사 39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권오봉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 시청사 별관 증축 문제에 대해 합동 여론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해역 1분기 해양사고 42척... 지난해보다 28% 줄어 운항 부주의·관리 소홀 71%

여수해양경찰서는 올해 1분기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4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척)에 비해 28.8%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1분기 전체 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운항 부주의·관리 소홀 각 15척(35.7%), ▲정비 불량 4척(9.5%), ▲안전 부주의 1척(2.3%) 순으로 운항 부주의 및 관리 소홀이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충돌, 좌초, 전복, 화재, 침몰, 침수

등 6대 해양사고가 30척으로 전체사고 대비 71.4%를 차지했다. 이 중 충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1월 11척(26.1%), 2월 14척(33.3%), 3월 17척(40.4%) 순으로 발생했다. 3월은 농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전년도 농무기(3월-6월) 때 해양사고는 70척이 일어 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21척(5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화물·유조선이 7척(16.7%), 레저 선박 4척(9.5%), 예부선·낚시어선이 각 3척(7.1%), 여객선·유도선 각 1척(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레저활동의 증가로 레저 선박 및 낚시어선의 출항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는 지난 분기보다 33.3%(21척 → 7척) 감소했다.

여수해경은 올해 담당 해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합정 섹터 책임제’ 및 ‘해양사고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구축’을 시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노력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올해 남은 기간 바다가족과 안전공감대를 넓히고 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